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 -5개국 비교연구-

양종희 · 유석춘 · 박길성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5개국,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의 계층구조와 계층과정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국별로 학력, 직업, 소득 및 재산의 분포는 어떠한가, 그러한 계층구조가 형성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사회이동과 지위획득과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계층구조와 계층과정이 어떤 사회적 결과물 초래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적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헌과 자료의 입수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받아 각국별로 고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별로 거시적 차원의 불평등의 양상은 대체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들 국가의 비교를 통해서 계층구조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상당히 일관성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싱가포르처럼 산업화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이동률이 비교적 높고, 또한 중간계층이 넓고 상층과 하층이 좁은 중간계급사회적 계층구조로 변하고 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낙후된 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이동률도 높지 않고, 계층구조도 하층이 많고 중간층이나 상층이 적은 전형적인 전산업사회적 형태를 보였다. 산업화의 정도 외에, 국가별로 독특한 민족구성이나(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역별 차이(인도네시아, 필리핀), 전통적인 신분구조 및 산업구조(태국) 등도 불평등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판명되어, 산업화의 일반적 효과를 어느정도 수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I. 머리말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5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계층구조 및 계층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며, 그것의 사회적 결과를 밝히려 한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직업, 교육, 소득 및 재산의 분포와 이의 변화, 그리고 계층구조 내에서 개인의 사회이동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계층구조가 개인의 생활양식(life style)과 생활기회(life chance)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사회구조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여러 나라의 사회구조를 비교하는데 있어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파악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사회의 연구에 있어 사회 불평등 구조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 각 국가 내의 사회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임으로 인해 계층화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역동성의 측면에서 다소 단조로웠던 이들 국가들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계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증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화의 시각에서 볼 때 동남아시아 사회는 대체로 196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이 분명하다. 비교적 단순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계층구조에서 복잡한 계층구조로의 이행과 함께 상향이동적인 계층공간의 확대과정과 불평등의 심화로 특징되는 계층결정화 현상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동남아시아 사회는 계층화에 관한 산업사회론적 명제와 자본주의 사회론적 명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연구 지역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동남아시아 계층구조에 대한 본 논문의 관심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국제협력의 대상을 확대시켜야 하는 한국으로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는 데서도 연유된다. 동남아시아는 국가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국경제가 한편으로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의 유망지라는 것이다. 요컨대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유산의 유사성, 국제분업체제에서의 적절한 상대국으로서 동남아시아가 지니는 정치·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회구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남아시아 5개국의 사회구조, 특히 한 사회의 결집과 갈등을 함축하는 사회불평등구조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의 성공 여부는 한국기업이 투자국가의 사회구조를 어느정도 이해,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의 기본구조로서의 계층화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해외직접투자는 현대 자본주의의 다연적 팽창을 구성하는 중심 내용이며 동시에 새로운 국제분업질서 내의 한 국가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특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박길성, 1993:529). 91년 말 현재 동남아시아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체 건수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은행, 1992). 더우기 한국기업은 투자의 형태에 있어 100% 단독투자가 금액이나 건수에서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지역의 계층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불평등 현상에 대한 분석시각을 제시하고 이어 동남아시아 각국의 계층구조와 과정을 학력, 직업, 고용지위, 경제적 차원별로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각 사회 계층구조의 특징과 사회적 결과를 종합하려 한다.

본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시아 사회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계층이론의 적용은 물론이고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명제조차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본 논문은 각국의 계층구조, 계층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5개국을 비교하려는 만큼 단일한 분석틀을 작성하여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가 2차적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리고 국가마다 자료의 내용과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인해 분석틀이나 분석내용

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비교분석은 각국별 분석의 요약을 중심으로 비교 가능한 부분들에 국한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II. 분석틀

한 국가의 계층구조 혹은 계급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다양한 이론적 조망과 경험적 분석이 존재한다.¹ 우리는 기본적으로 맑시즘적 전통의 계급론적 접근방법 보다는 계층론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맑스 이론에 바탕을 둔 계급구조의 경험적 논의는 연구하려는 대상 국가의 경제구조의 성격,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급개념 및 계급 구분기준 등에 대한 복잡한 논쟁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층론적 접근방법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나, 비교적 합의의 보고 있는 몇 가지 기준, 예컨대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준은 다양한 사회의 비교에도 큰 무리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계층개념은 계급개념에 비해 전제하여야 할 가정이 적다는 점도 본 연구와 같이 여러 사회의 비교 분석에 큰 장점이 된다. 그러나 사회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상반된 이론들이 그러하듯 계층이론과 계급이론도 서로 보완적이다. 이를테면 계급론은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로 야기되는 계급간 갈등과 사회구조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계층론 보다 더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계층론적 접근을 중심 시각으로 하되 계급론적 검토도 필요에 따라 병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입장정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어떤 한 이론을 검증하거나 혹은 보다 나은 이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불평등 구조를 경험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는 탐색적 연구인 만큼 어떤 특정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이론적으로 보다 융통성있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일관성있는 비교분석을 위한 개략적인 분석틀을 제시하려 한다.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희소한 자원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나 하는 질문으로, 이것은 사회의 계층구조의 파악과 관련된다. 두번째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자원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세대간 자원의 분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계층과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사회계층을 계층구조와 계층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런 다음 그것의 사회적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계층구조는 경제적 계급,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보통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험적 연구에서는 직업이라는 단일한 지표가 많

1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들이 작성한 『동남아시아의 계층구조 : 5개국 비교연구』 지역종합연구보고서 pp.4-21 참조할 것.

이 사용된다. 그러나 직업의 측정에서는 직업위세의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등이 분리되어 고려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직업위세와 교육, 소득 등이 계층분석의 요인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 세 차원을 고려하여, 학력에서의 불평등, 직업지위에서의 불평등,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계층과정의 분석은 사회이동과 지위획득으로 나뉘어 이루어 진다. 사회이동은 계층간 혹은 계급간 수직이동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직업을 지표로 하거나, 여러 지표를 종합한 복합적 지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주관적 지표가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차적 자료로서, 각종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 문헌 그리고 정부 간행물 등이다. 본 논문은 각국의 센서스 자료와 각종 연감 및 정부에서 수집하고 발간하는 경제·사회통계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5개국의 사회계층을 비교분석하려 한다.

Ⅲ. 사회적 불평등의 양상과 변화

가장 보편적인 수준에서 현대사회의 계층구조 형성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크게 사회구조적, 역사적 전통과, 산업화 및 경제성장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이 두 요인은 계층구조 형성에 서로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구조적, 역사적 전통이 이들 국가에서 전통적인 신분구조 혹은 위계적인 사회질서를 온존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이러한 전통적 신분구조를 파괴하고 보다 평등주의적, 업적주의적 계층구조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처럼 식민지 경험이 없고 오래동안 통합된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를 유지한 나라는 전통적인 신분체제나 불평등구조의 형태가 잔존하여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리라고 생각되는 반면, 싱가포르 같이 외부에서 이주민이 유입되어 새롭게 근대국가로 성립된 경우에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적 혹은 문화적 영향은 극소화되고 대신 최근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계층구조화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수준에서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 요인들이 각국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이나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한 것이고 때로는 상반된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5개국의 계층구조와 과정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위의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각국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학력에서의 불평등

학력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사회계층의 가장 중요한 차원 가운데 하나이다. 학력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인일 뿐만 아니라, 지위획득 과정에서 귀속적 요인(예를 들어 성별, 인종, 가족배경 등)과 대비되는 획득적 요인의 대표적 지표로 간

주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국간의 학력에 있어서 불평등을 비교하고, 학력의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색출해 보기로 한다.

〈표 1〉은 학력별 인구분포와 문자해득률을 나타내고 있다. 나라마다 교육제도가 조금씩 다르고 교육의 질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수학년수를 기준으로 학력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고등교육, 즉 13년 이상 수학한 인구의 비율은 필리핀이 11.9%로 가장 높고, 다음이 태국 5.4% 그리고 싱가포르 순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통계에는 초급대 출신 7.2%가 포함되어 있고, 태국의 경우에는 교직원 2.1%가 포함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엔 중등학교 수학연수가 6-8년이므로 실제로는 4.3%보다 많은 수가 13년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인구의 비율로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가 39.1%로 가장 높고, 다음이 필리핀 33.8%, 인도네시아 22.2%, 태국 16.2%의 순이다. 그러나 무학의 비율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아 13.3%에 달한다. 문자해득률은 태국이 가장 높아 인구의 91%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으며 다음이 싱가포르 87%, 필리핀 86% 순이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75% 미만이다.

각국별로 학력획득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1970년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실시한 이후 학력이 급격히 개선되어, 평균 수학연수가 1971년 2.8년에서 1985년에는 4.5년으로 높아졌다. 학력수준은 지역별, 성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학연수가 높다. 즉 도시남성의 경우 평균 수학연수가 7.3년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시여성이 5.6년, 농촌남성 4.3년, 농촌여성 3.0년 순이다(Bendes, 1992:456). 그런데 도

〈표 1〉 각국의 학력별 인구분포 및 문자해득률

국 가	학 력(%)					문자해득률(%) (1989)
	무 학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12년)	고등교육 (12년이상)	계	
인도네시아(1990)	13.3	64.6	21.0	1.2	100.0	74
필리핀(1980)	9.5	56.3	21.9	11.9 ¹⁾	100.0	86
싱가폴(1990)		60.9	34.8	4.3 ²⁾	100.0	87
태국(1988)	5.8	77.5	10.8	5.4 ³⁾	100.0	91

주 : 1) 초급대 7.2%가 포함되어 있다.

2) 싱가포르의 중등학교는 6-8년이므로 실제로 13년 이상 수학자는 이보다 많다.

3) 교직원수, 단기 직업연수 2.1%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문자해득률은 Naya & Imada(1992:51)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1991.

Population in the Philippine Country, Monograph Series #5, ESCAP, 1980.

Census of Population 1990 Singapore.

Statistical Yearbook of Thailand, 1990.

시여성과 농촌남성의 수학년수를 비교해 볼 때 5.6년과 4.3년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도시 농촌의 지역적 조건이 성별보다 학력획득에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최근 20여년 동안에 중등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취학률을 높이고 있다. 1957년에서 1980년 까지 국민학교 학생은 약 2배로 증가했으나,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은 각각 13배와 40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Won, 1984:230). 말레이시아의 학력수준은 특히 민족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1980년도 민족집단별 대학 취학률을 보면 수료과정은 선택비율(대학생의 인종별 비율을 전체 인구의 인종별 비율로 나눈 값)이 중국인 1.97, 인도인 0.96, 말레이인 0.37의 순이며, 학위과정의 경우 국내대학은 말레이인이 1.2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국인 0.75, 인도인 0.57 순이나 국내, 국외를 합치면 중국인이 1.2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도인 0.92, 말레이인 0.88순이다(ibid.:253). 이처럼 중국인이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0년부터 시작된 신경제정책에서 국공립대학 수학생 중국인보다 말레이인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중국인과 말레이인의 학력차이를 줄이려하고 있다. 또 말레이인의 학력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

필리핀도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지난 20여년동안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획득 기회가 급속히 성장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취학률이 1960년에는 27%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60%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1980년도 국민학교 취학률은 95.3%, 그리고 대학취학률은 24%였다. 취학률은 지역별로 격차가 심해서 중등학교의 경우 수도권과 루손 북부지역이 높고, 중부 비사야스 및 서부 만다나오 지방이 낮다.²

싱가폴의 경우 1990년 통계에 의하면 6세에서 17세까지의 취학연령인구의 96.6%가 취학하고 있는데 이것은 1977년 78.5%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대부분의 성인인구가 중등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인구의 학력차이의 원인으로는 성별, 민족집단, 가족적 배경의 세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성별의 차이는 크게 개선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중등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의 경우 1980년 통계에 남자는 19.3% 여자는 17.1%였는데 1990년에는 남자 34.9% 여자 34.6%로 비슷해졌다(Quah Jon S.T., 1991:45). 대학학력의 경우도 1980년에는 남자가 각각 3.5%와 1.8%로 큰 차이가 있었으나 1990년에는 5.2%와 3.5%로 많이 줄었다. 민족집단별로는 1990년 현재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 순으로 학력이 높은데, 1980년에는 인도, 중국인, 말레이인 순이었다.³ 이처럼 민족집단별 학력수준의 차이가 변한다는 것은 학력획득에 대한 민족집단별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부친의 학력과 직업같은 가족적 배경도 학력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더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태국은 인구의 낮은 학력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 의무교육을 4년에서 6년으로 연

2 MECS Statistical Bulletin, 1985-86, p.34.

3 Census of Population, 1990, Dept.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14.

장하는 등 교육기회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문자해득률은 90%를 넘어서 선진국 수준이지만 아직도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기회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 고등교육기관을 크게 늘려 1960년도 51,000여명이던 국립대학 학생수가 1986년에는 101,700명으로 늘었고, 신설대학을 포함하면 총 대학생 수는 796,000명에 달한다.

이상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볼 때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수준이 학력수준과 어느 정도는 상응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조건 외에 정부의 정책, 문화적 전통 등도 학력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라에 따라 민족집단, 성별, 가족적 배경도 학력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러한 귀속적 요인의 효과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되며, 또 그러한 귀속적 요인이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결부된 정도가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직업지위와 고용지위에서의 불평등

직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일 지표로 간주된다. 직업으로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위세적 측면을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직업지위점수를 구하는 방법과 직업에 따르는 학력과 소득을 계산해서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직업위세를 측정할 연구자료는 싱가포르와 태국 밖에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각종 직업통계에서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리 국제직업분류에 의한 직업분포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것은 직업을 7개의 범주로 나누는 것인데 각 직업군의 평균 학력과 평균소득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있는 위계서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업지위의 대략적 지표로 사용할 만 하다. <표 2>에 의하면 전문기술직 및 경영관리직의 상위 직업군의 비율을 비교할 때 싱가포르가 2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순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문기술직

<표 2> 각국의 직업별 취업인구 분포(%)

국 가	전 문 기술직	경 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업	생산직	기 타	계
말레이시아(1985)	6.5	1.2	7.3	10.4	8.9	30.5	35.2	-	100.0
필리핀(1991)	6	1	4	14	9	45	21	-	100.0
싱가폴(1990)	8.2	15.7	13.4		13.2	0.3	43.8	5.4	100.0
태국(1988)	3.4	1.4	2.9	9.4	3.5	65.8	13.6	-	100.0

자료 : Fourth Malaysia Plan 1981-1985.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1992.

Quah et al.(1991)

Statistical Yearbook of Thailand, 1990.

과 경영관리직 다음으로 높은 직업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무직에 있어서도 싱가포르가 13.4%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순서로서 직업별 분포의 서열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점하는 농업(농림어업)의 경우에는 태국이 65.8%로 가장 많고 다음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순이며 싱가폴은 0.3%에 불과하다. 한편 생산직의 경우에는 싱가폴이 43.8%, 말레이시아 35.2%, 필리핀 21%, 태국 13.6% 등으로 산업화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 결과를 각국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지난 1970년에 비해 1985년에는 농업은 44.8%에서 30.5%로 줄어든 반면 생산직은 27.3%에서 35.2%로 크게 증가하여 산업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전문·기술직, 사무직 등도 증가하여, 산업화와 더불어 직업분포가 높은 직업지위를 가진 직업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의 분포는 말레이시아의 3개의 주요 민족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사무직 같은 위세가 높은 직업군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말레이인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인데 1980년 이래 이런 민족집단간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Onn, 1984:226-227).

필리핀의 직업분포는 농업이 45%로 거의 반에 육박하고 있고, 생산직 21%, 판매직 및 서비스직이 23%로 낮은 지위의 직업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사무직 등은 지난 10여년동안 계속 10%정도 내외에 머물러 있어, 산업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계층적 분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직업분포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수도권과 푸손의 중부만이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사무직 등 상위 직업의 비율이 높고, 또 생산직의 비율도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싱가폴의 경우는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직업분포를 보인다. 농업은 0.3%에 불과하고 판매직과 서비스직도 13.2%에 머문 반면, 생산직이 43.8%로 가장 많고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사무직 등 상위 3개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37.3%에 이른다. 이러한 직업분포는 성별, 민족집단별로 차이가 있는데, 성별로는 경영·관리직에서 남자가 11.0%로 여자의 3.9%보다 훨씬 많고, 반대로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는 여자가 38.9%로 남자의 18.9%보다 훨씬 많다. 전문기술직의 경우에는 남자 15.3%, 여자 16.4%로 비슷하여 여자가 오히려 약간 많아서 직업지위의 차원에서의 남녀의 차이라기 보다는 직업의 유형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⁵ 민족집단별로는 중국인이 전문·기술직과 경영·관리직 등 높은 서열의 직업에서 인도인이나 말레이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말레이인은 생산직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민족집단간의 이러한 직업지위상의 격차는 지난 1970년 이래 더욱 커져서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의 서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⁶

4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1984, 1992.

5 *Singapore Census of Population 1990* Dept. of Statistics, 1991, p.23.

6 *Census of Population 1990*, p.54.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5개국 가운데 산업화가 가장 덜 된 나라인데,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이 아직도(1988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5.8%에 이르고 생산직은 13.6%에 불과하다.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인구도 10%에 못 미치고 있어서 고용인구가 낮은 지위의 직업에 집중되어 있다.⁷

직업분류에 따른 직업지위에 있어서의 불평등구조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수준에 따라 직업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직의 증가와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및 사무직 등 상위 직업군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직업지위의 분포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민족집단별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인이 다른 민족보다 높은 지위의 직업에 상대적으로 많다. 성별 직업차이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는 학력획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고용지위상의 분포는 맑스의 계급이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급이론에서 고용주는 자본가계급과 동일시되고 피고용인은 노동자로 간주되며, 자영업자는 구중간계급에 상응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맑스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계급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극화되고 구중간계급은 소멸된다고 한다. 각국의 고용지위별 취업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각국의 고용지위별 취업인구 분포 (%)

국 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	피고용자	계
인도네시아(1990)	0.8	43.3	28.1	27.8	100.0
필리핀(1989)	-	36.8	16.7	46.5	100.0
싱가폴(1985)	5.2	8.4	2.0	84.4	100.0
태국(1990)	1.4	31.7	35.7	31.2	100.0

자료 : Labor Force Situation in Indonesia, 1991.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1989.

Quah et al.(1991).

Statistical Yearbook of Thailand, 1990.

네나라 가운데 고용주가 가장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로서 5.2%였고, 따라서 피고용인도 네 나라 중 가장 많은 편인데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노동자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고용지위의 분포의 변화과정을 보면 고용주는 1966년 3.7%에서 1985년에는 5.2%로 크게 늘었고, 자영업자는 16%에서 8.4%로 줄어든 반면 피고용인은 75.8%에서 84.4%로 증가하여 전형적인 자본주의 심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Quah et al., 1991:117). 나머지 세 나라, 즉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모두 싱가포르에 비해 자영업

⁷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ailand, *Statistical Yearbook of Thailand*, 1990.

자와 무급가족노동자가 월등히 많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농업인구를 비롯한 구중간 계급이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아직 자본주의 발전단계가 낮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일부 후발국가에서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진행과정에서 자영업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발전과 고용지위의 분포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데는 주의를 요하나, 이들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수준으로 보아 이러한 해석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지위의 경우도 직업분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민족집단별로 차이가 있어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경우는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피고용인은 말레이인이 96.7%를 차지하고 있다(Quah et al., 1991:149).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학력별, 성별 차이가 드러나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전자본제 부문, 즉 자영업이나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성별로는 여성이 가족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⁸ 한편 필리핀에서는 직업분포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차이가 중요한데, 수도권과 루손 중부지방이 다른 지역보다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는데 반해 다른 지역은 전자본주의 부문이 지배적이다.⁹ 태국은 높은 농업종사자 비율이 고용지위에서 자영업자와 가족노동자에 반영되어 두 범주의 비율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평등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은 주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실업률이나 빈곤선이하 가구의 비율이 고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이나 직업과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의 불평등에 관한 자료나 연구는 많지 않다. 여기서는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5개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비교하고자 하는데 측정연도가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있어서 비교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로 할 것이다.

먼저 소득의 불평등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보통 가구소득이 많이 사용되므로 여기서는 가구소득에 한정해서 비교해 보겠다. <표 4>는 5분위 가구집단별로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측정연도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모두 1970년대 중반이어서 오늘날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비교의 목적으로는 큰 부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1970년대 중반의 가구소득 분포는 역시 싱가포르가 가장 평등한 편이어서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7%로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낮다. 또 상위 20%가 차지하는 가구소득의 비율을 하위 20%가 차지하는 가구소득의 비율로 나눈 값(Q1/Q5)도 7.0으로서 가장 낮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평등한 편이어서 Q1/Q5가 각각 7.5와 8.9이다. 필리핀은 1985년 통계인데 상위 20%가 차지하는 가구소득 비율이 52.5%나 되고 Q1/Q5의 비율도 10.1이나 된다. 1970년대 중반 가구소득 분포

8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1989.

9 Center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1991*.

〈표 4〉 각국의 가구소득 분포

국 가	5분위 집단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Q1(상위 20%)	Q2(20%)	Q3(20%)	Q4(20%)	Q5(하위20%)	Q1/Q5
인도네시아(1976)	49.4	23.6	12.6	7.8	6.6	7.5
말레이시아(1973)	56.1	20.3	12.4	7.7	3.5	16.0
필리핀(1985)	52.5	20.2	13.2	8.9	5.2	10.1
싱가폴(1973)	44.7	20.0	16.5	12.4	6.4	7.0
태국(1975-6)	49.8	21.1	13.9	9.6	5.6	8.9

자료 : Bautista(1992:6), Table 2.2.

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Q1/Q5가 16이나 된다.

가구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는 Gini계수도 많이 쓰인다. Gini계수는 값이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뜻하는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의 Gini계수는 앞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0.318로서 싱가포르의 0.37보다 낮아 더 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필리핀은 1975년 현재 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가장 낮은 Gini계수(0.308)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의 불평등 정도는 순서가 바뀌어 있다. 1970년대 중반에 가장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던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평등한 소득구조를 보이고 있고, 태국과 필리핀이 가장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싱가폴은 Gini계수가 1970년대의 0.37에서 1980년대 초반에는 0.42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불평등은 반드시 산업화나 경제성장과 비례해서 줄어들거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소득 불평등의 측정은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자료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1971년도 Gini 계수기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0.453과 0.48로 크게 차이가 난다(Bautista, 1992:9, Table 2.3 참조).

〈표 5〉 각국의 가구소득에 대한 Gini계수

국 가	연도	Gini	연도	Gini	연도	Gini
인도네시아	1963	.333	1976	.318	1984	.308
말레이시아	1970	.499	1976	.529	1984	.408
필리핀	1965	.465	1975	.452	1985	.450
싱가폴	1972-3	.40	1977-8	.37	1982-3	.42
태 국	1968-9	.429	1975-6	.451	1981	.473

자료 : Bautista(1992:9), Table 2.3

가구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 외에도 도시-농촌의 지역

별 차이와 민족집단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개인소득의 경우에는 성별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1976년도 농촌의 평균 가구소득은 도시의 47%에 불과했으며 또 가구소득 분포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Gini계수가 농촌이 0.4739, 도시가 0.4317로 농촌이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시-농촌간 차이는 필리핀에서도 두드러져서 1988년도 농촌의 평균 가구소득은 도시의 42%에 불과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의 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소득의 1.94배로서 수도권 지역과 기타 지역간의 불평등이 심각하다.¹⁰ 다음으로 민족집단별 차이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중요한데,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보다 심한 편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973년도 소득수준이 상층인 말레이인은 0.7%에 불과했으나 중국인은 3.4%였고, 반대로 하층은 각각 59.7%와 24.7%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집단간 격차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예컨대 1987년도에는 말레이인이 상층에 3.6%, 중국인이 8.6%였고, 하층에는 말레이인이 26.4%, 중국인이 5.8%였다.¹¹ 싱가포르에서 중국인이 가장 높은 소득을 차지하고, 다음은 인도인, 그리고 말레이인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다 (Quah et al., 1991:163).

한편 재산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토지소유, 자본소유, 주택소유 등 여러가지로 측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나라마다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서 직접비교는 어렵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농민의 토지소유 분포로 재산상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필리핀의 경우엔 1988년 현재 상위 5%의 농민이 전체 농민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3헥타 이하의 소규모 농지 소유자가 전체 농지 소유자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은 전체 농지의 16%에 불과하다.¹²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에 있어서도 민족집단별 차이가 있어서 평균 경작규모를 볼 때 중국인이 4.7에이커로 가장 많고 인도인 3.4에이커, 말레이인 1.7에이커 순이다(1970년)(Onn, 1984:133). 싱가폴은 대부분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산은 주택으로 주택규모가 한 가구의 자산 규모를 대략 결정한다. 주택은 81%가 공공주택이고, 방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소득규모에 차등을 두기 때문에 주택의 형태와 규모는 재산상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Wong, 1985:243-245).

빈곤선 이하의 가구 비율은 빈곤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것 역시 국가간 직접 비교는 사실상 어렵다. 각국은 그 나라에서 생활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정하는데, 정의 자체는 문제시하지 않고 빈곤선 이하의 가구의 비율을 비교한다면 1980년대의 통계로는 필리핀이 59.3%로 가장 높고 다음 태국 24%, 인도네시아 21.7%, 말레이시아 18.4%, 싱가포르 18% 등의 순이다.¹³ 이 비율은 각국에서 대체로 감소해 왔는데 필리핀만은 1971년 44%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0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1989.

11 Dept. of Statistics, Malaysia, *Household Income Survey*, 1987.

12 Dept. of Agricultural Reform, *Final Reports on Landholders Registration by Region as of July 1980*, 1992, pp.29-30.

13 Bautista(1992:14) Table 2.6

이상으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 비교해 보았는데, 역사적으로 즉 지난 20-30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반드시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Gini계수의 변동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앞선 싱가포르나 태국이 불평등이 더 악화되었고,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양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직선적인 正의 관계라고 가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성숙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불평등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의 분석으로 볼 때는 산업화나 경제성장 외에 정부의 정책이나, 인구의 민족집단별 구성, 그리고 사회구조적, 역사적 전통도 불평등 구조의 형성이나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사회이동과 지위획득

지금까지 학력, 직업,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가능한 한 그 변화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변화는 불평등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층구조 내에서 개인의 사회이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나와는 다른 차원이다. 즉 구조적 이동과 교환이동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계층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물론 구조적 이동도 중요하지만,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이동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는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 우리의 연구에서도 싱가포르와 태국을 제외하고는 사회이동이나 지위획득에 대한 자료나 연구를 입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두 나라의 사회이동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태국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에 일부 공직자의 부친의 직업을 조사해서 직업이동을 살펴본 것으로 특급관리의 41%는 부친도 공직자였으며 31.4%는 기업가, 농민은 5.6%에 불과했다. 일급관리의 경우도 32.7%의 부친이 공직자였고, 26.9%가 기업가, 10.3%가 농민으로 1970년까지 직업 세습률이 높았음을 입증한다(Dhiravcgins, 1978:61-68). 특히 1970년대에 태국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한 것을 감안한다면 세대간 상향이동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세대간 세습률이 상당히 높았으나 1980년에는 세습률은 크게 떨어지고 수직이동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1972년 도시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률이 가장 낮은 상층의 수직이동률이 60%, 가장 높은 하층은 95%였다. 그러나 1984년 연구에서는 학력의 경우 79%가 수직이동을 경험하고 있고 직업도 직업위세 점수의 측면에서 볼 때 65%가 수직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Chen, 1986:94). 이것은 1970년대 이후 싱가포르의 계층구조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되어 사회이동의 기회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민족집단별 사회이동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지위획득 모형은 개인의 직업지위에 대한 부모의 직업과 학력 그리고 그 개인의 학력이 미

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계층구조 내에서 지위획득이 주로 귀속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업적적 요인(학력)에 의해 이루어지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석이다. 지위획득에 대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설은 “한 사회가 더욱 산업화될수록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어지고, 학력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커진다”라는 것인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표본을 세 연령집단별(산업화 정도를 나타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조직 획득과 부모의 직업, 학력 같은 배경요인은 관련이 없는 반면, 젊은 연령층일수록 학력이 조직 획득에 미친 영향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지위 획득에서 학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 사회가 귀속적 요인보다는 업적적 요인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산업사회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V. 계층구조의 특징과 사회적 결과

앞 장에서는 계층의 각 차원별 불평등구조를 비교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여러 차원에서의 불평등구조를 종합하여, 나라별로 계층구조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어떤 사회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 국가의 계층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몇 개의 계층을 설정할 것인가(예를 들면 상층, 중층, 하층으로 할 것인가, 상층, 중의상, 중의중, 중의하, 하층으로 할 것인가 등), 그리고 계층간 구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계층이론에서는 주로 학력, 직업, 소득을 종합한 사회경제적 지위(SES) 척도를 사용하여 상층, 중층, 하층 등으로 구분하고 계급이론에서는 주로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자본가, 노동자, 구중간계급, 신중간계급 등을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층이론적 조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척도에 의한 계층구조를 구성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 있지만 계층구조는 일반적으로 산업화나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한다고 가정된다. 즉 전통적인 농업위주의 사회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하층에 속하고 소수만이 상층을 점유하는 밀이 넓은 피라미트의 형태를 취하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중간층이 늘어나 마름모꼴의 형태를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이론적 명제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계층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로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싱가폴은 경제적 수준과 산업화의 정도가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거의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기 때문에 중간계층이 비대한 마름모꼴의 계층구조가 예상된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지위척도에 의해 5개의 계층으로 된 계층구조를 구성했을 때 상층과 하층은 매우 좁고 중간 3계층이 큰 마름모꼴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이런 형태는 1970년대 중간층과 하층의 크기가 비슷한 5각형의 계층구조에서 변화한 것이다. 또한

활발한 사회이동과, 귀속적 요인보다는 업적적 요인에 의한 지위획득이 우세한 특징을 보여, 싱가포르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중간계급사회로 이전했거나 적어도 이전하는 과정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회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등 여러 민족집단이 모인 사회로서 민족집단별 차이를 예상할 수 있으나, 계층구조에서 민족집단의 영향력이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은 싱가포르 사회에서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의 많은 부분이 민족적 고려보다는 계급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는 한 서구 학자의 관찰에서도 입증된다(Buchanan, 1972:201).

이러한 계층구조는 각 계층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생활기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싱가포르의 상류계층은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서구화되어 영국 상류계층의 특징을 많이 닮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각 부분의 엘리트들인데, 상층계급을 이루는 엘리트 집단은 정치적 엘리트, 관료 엘리트, 전문직·지식인 엘리트, 그리고 경제적 엘리트의 네 성분으로 되어있다. 이들 엘리트 집단 가운데 정치적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가 싱가포르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층 구성하고 있고 전문직·지식인 엘리트는 주변적인 권력 엘리트이다. 경제적 엘리트가 권력 엘리트층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싱가포르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중간계급은 기업가 집단, 지식인, 젊은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주변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네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실현, 자아 개발, 즉각적 만족의 보류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예술 감상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참여에는 소극적이고, 사회정의나 정치에 대해서는 비판적 혹은 냉소적이다. 하층계급은 생산직 노동자가 주종을 이루나 판매직, 서비스 종사자, 행상, 일부 하급 사무직 등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 이질적인 범주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소유, 교육적 기회의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고, 비교적 덜 서구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싱가포르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노동계급에 큰 영향을 주어 중간계층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층계급의 성격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수준이나 산업화의 정도에 있어서 싱가포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으나 나머지 세 나라, 즉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다는 앞서 있다. 말레이시아의 계층구조는 직업분포나 소득분포로 보아 중간층과 하층이 넓고 상층이 좁은 5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점점 마름모꼴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농업인구의 비율이 낮고 공업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계층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싱가포르 보다는 민족집단별 계층구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세 주요 민족집단 가운데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상층과 중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말레이인은 하층에 과도하게 몰려있다. 그러나 이런 민족집단간 차이가 최근에는 정부의 노력으로 크게 수정되고 있다.

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두배에 달하나 농업인구는 이들 두 나라보다 훨씬 많아, 전형적인 전산업화 혹은 초기 산업화 단계의 피라미트형 계층구조를 보인다. 월평균 소득분포를 중심으로 계층구조를 상층, 중층, 하층의 세 계층으로 구분해 보면 하층이 85.4%, 중간층 12%, 상층 1.6%로 하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하층계급사회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구조는 도시-농촌간, 농업-비농업 부문간 큰 차

이를 보이며, 상층과 하층은 세대간 높은 세습률을 나타내고 있어 근대적 부문과 전근대적 부문간의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

태국의 상층계급은 전통적으로 중국계 자본가계급과 군부-민간관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정치적 이유로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장악한 핵심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신흥계급으로 기업가 집단을 탄생시켰다. 이들 기업가 집단도 역시 중국계가 주종을 이루지만 옛날의 중국계 상인과는 달리 태국 사회에 깊이 동화하고 있어서 일반 대중의 이미지도 호의적으로 변하고,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다. 중간계급은 과거에는 주로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소수의 관료 집단이었으나 최근 산업이 발달하면서 신중간계급이 확대되었다. 이 신중간계급은 구중간계급과 더불어 태국에서 현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태국의 하층계급은 주로 농민으로 구성되나 최근에는 산업발달의 결과로 도시 노동자층이 가세하였다. 이들 노동자는 대부분 농촌인구에서 충원되고 있는데, 현재는 공급과잉으로 하나의 계급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맞물려 점점 더 노사 갈등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의 계층구조도 태국과 마찬가지로 후진국의 전형적인 피라밋형 구조를 보인다. 소득분포에서 하층이 79%, 중간층이 17%, 상층 4%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직업별 고용인구의 분포에서도 농업과 생산직이 66%이며 여기에 판매직과 서비스직을 합하면 무려 89%나 된다. 필리핀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비교적 일찍 산업화를 시작하여 이들 두 나라보다는 농업인구가 많지 않으나, 오랫동안의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최근 10여년 동안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고, 그 결과 직업구조나 소득분포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필리핀은 아직도 전자본주의적 부문이 자본주의적 부문보다 큰 전산업사회적 계급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크며, 또 필리핀 특유의 지역적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도권과 루손의 중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계층구조에서 상층에서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5개국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나, 최근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자본주의적 부문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초기 산업화 단계에 있는 사회로서 하층계급이 절대적으로 많은 하층계급사회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상층을 이루는 자본가계급은 0.8%에 불과하고 신중간계급도 매우 미약하며 대다수가 농업이나 도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하층계급이다. 또 필리핀이나 태국처럼 초기 산업화 단계에 있는 사회의 전형적 특징으로 도시-농촌간 격차가 크며, 그와 관련하여 산업부문간 소득격차도 매우 크다. 성별, 지역별 불평등 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계층구조가 아직도 전통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는 다종족국가로서 종족집단간의 격차도 상당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아마도 정치적 이유로 이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다만 중국계는 전체인구의 5%에 불과하나 전 기업자산의 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남아

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동남아시아 5개국의 계층구조의 비교는 사회학적 통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화의 정도와 경제발전의 수준이 대체로 한 국가의 계층구조의 형태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가별로 전통적 유제, 민족집단별 구성, 지역간 차이, 그리고 성별, 도시-농촌, 산업부문 등도 계층구조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런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즉 산업화의 단계가 높아지거나 경제발전의 수준이 향상되면 그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이 이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다만 여기서처럼 거시적이고 일반성의 수준이 높은 분석이 아니고 미시적인 분석을 할 경우엔 각 국가별 다양한 특성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교육기회의 확대는 일단 고용구조의 변화는 물론이고 임금노동자, 특히 신중간계급의 성장 가능성을 약정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보편화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적어도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듯이 보인다. 그것은 임금고용에 비해 자영업의 비중이 아직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계급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구중간계급이 넓은 형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계층별로는 하층집단이 두꺼운 층으로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사회의 계층구조와 관련된 오랜 쟁점 중의 하나는 그 사회가 중간계급사회인가 아닌가이다. 특히 경제적 후진단계에서 급격한 산업화를 거쳐 경제성장의 성과물이 어느 정도 표출되기 시작한 사회의 경우 이러한 문제관심은 사회변동의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¹⁴ 싱가포르를 제외한 여타 국가를 중간계급 중심적인 사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 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간계급의 핵심세력으로서 신중간계급의 등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중간층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의식의 형성이나 정치적 행동이 미미하다는 데서 찾아진다.

동남아시아 사회는 대체로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상향이동적인 계층공간이 구조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지배계층 편향적이며 지역 편중적인 산업화 정책은 계층화를 확대심화시키는 측면마저 보인다. 즉 교육기회의 확대는 현대적 사기업의 등장과 관료제 기능의 확대와 결합되어 상향이동의 계층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계층구조가 유연적임을 보여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더 확연하게 만듦으로써 자본주의적 계층의 결정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 Quah, Jon S.T. 논문과 Chen, Peter S.J.의 논문을 참조할 것.

〈참 고 문 헌〉

박길성

1993 “국제화와 한국의 사회변동”, 임희섭, 박길성 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양종희, 유석춘, 박길성

1993 『동남아시아의 계층구조 : 5개국 비교연구』, 서울대 지역종합연구보고서.
한국은행

1992 『해외투자통계연보』.

Bautista, Romeo M.

1992 *Development Policy in East Asia : Economic Growth and Poverty
Alleviation*.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Bendesa, I.

1992 “The Structural Change of Employment and Education in Indonesia” *The Indonesian
Quarterly*. 20(4).

Buchanan, Iain

1972 *Singapore in Southeast Asia : An Economic and Political Appraisal*. London: G.
Bell & Son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ndonesia

1990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ndonesia

1990 *Labour Force Situation in Indonesia*.

Chen, Peter S.J.

1986 “Sociological Studies on Singapore Society,” in B.Kapur (ed.)
Singapore Studies : Critical Survey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Reform, Philippines

1992 *Final Reports on Landlords Registration by Region as of July 1980*.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1987 *Household Income Survey*.

1991 *Census of Population 1990 : Advance Data Release*.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Dhiravegnis, I.

1978 *The Bureaucratic Elite of Thailand : A Study of Their Sociological
Attributes, Educational Backgrounds and Career Advancement Pattern*.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Press.

MECS *Statistical Bulletin*. 1985-1986.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ailand

1990 *Statistical Yearbook of Thailand*.

Naya, Seiji and Pearl Imada

1992 "Economic Success of the NICs and ASEAN Economies : Some Lessons for Latin America?," *Southeast Asian Affairs 1992*.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Onn, Fong Chan

1984 *The Malaysian Economic Challenge in the 1990s : Transformation for Growth*, Longman Singapore Publishers.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1984, 1989, 1992.

Population in the Philippine Country, Monograph Series #5 ESCAP 1980

Quah, Jon S.T.

1991 "The 1980s : A Review of Significant Political Developments," in F.C.T.Chew and Edwin Lee (eds.) *A History of Singapore*.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Quah, Stellar R., Sen Kong Chiew, Yui Chung Ko, Sharon Mengchee Lee

1991 *Social Class in Singapore*.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Won, Toh Kin

1984 "Education as a Vehicle for Reducing Economic Inequality," in S. Husin Ali (ed.) *Ethnicity, Class and Development*. Kuala Lumpur: Persatuan Sains Social Malaysia.

Wong, Aline K. and Steven H.K.Yeh (eds.)

1985 *Housing a Nation : 25 Years of Public Housing in Singapore*. Singapore: Maruzen.

Social Stratification in Southeast Asia: A Comparison of 5 countries

Jonghoe Yang · Seok-choon Lew · Gils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social stratification in 5 Southeast Asian countries, i.e.,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Specifically the following topics regarding social inequality were examined in each country : 1) the structure of inequality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status, income, property and other economic indicators; 2) major factors for the formation of

stratification system; 3) social mobility and status attainment; 4) social consequences of the stratification hierarchy.

Data for this analysis were mainly from secondary sources including various statistical reports and previous studies done by others. Due to the uneven availability and uneven quality of such data, each country report was often inconsistent to the point of being devoid of comparison. Still it was possible to compare, at the most general and macroscopic level, the nature of stratification system among the 5 countries. A major conclusion drawn from the comparison was that the level of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stratification hierarchy, which is commonly known as the industrialization thesis. For example, Singapore economically most advanced among the 5 countries, has experienced high vertical mobility and seems to have moved toward a 'middle class society' at least for the past two decades, while in the least develope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mobility rates were very low and their stratification systems resemble a pyramid, a typical preindustrial type with a small upper and middle class and the vast majority in the bottom. However there were also national variations in the shape of the stratification hierarchy, indicating the particular socio-cultural and other factors unique to each country countervailing to a certain extent the industrialization effect. Among the unique factors, ethnic composition in Malaysia and Singapore, regional differences i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nd traditional economic structure in Thailand were found to be important.

양종희,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주소 : (110-745) 서울시 종로구 병문동 3-53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Tel : 760-0409 (O), 905-5091 (H).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주소 :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Tel : 361-2427 (O), 794-3289 (H).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주소 :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Tel : 920-1256 (O), 383-2582 (H).